

AI는 항상 '정답일까' 반문... 자전거 배우듯 'AI 문해력' 익혀라 [AI 블랙홀 시대-인간다움을 묻다]

입력 : 2024-01-03 02:09 | 수정 : 2024-01-03 02:09



▲ 직장인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성동구 엘리스랩 성수센터에서 진행된 '생성 인공지능(AI)과 푸드테크' 공개 수업을 듣고 있다.

엘리스그룹 제공

#사례1.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고윤담(32)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조수'로 둔 덕분에 시장조사를 할 때 걸렸던 시간을 10배 이상 단축했다고 뿌듯해했다. 챗GPT에 사전 조사를 지시하면 필요한 주제, 자료, 개요 등을 바로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 초안을 작성한 뒤 챗GPT를 활용해 영문 교정을 하고 영문 이메일을 보낼 때도 챗GPT로 초안을 쓴다. 고씨는 2일 "학술적인 문체를 요청하면 금세 바꿔 준다"며 "전문성을 높여 주는 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사례2.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김영권(27·가명)씨는 2020년 학내 동아리에서 코딩을 배우고 AI 스타트업에서 AI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 기획·운영 업무를 1년 10개월가량 한 적이 있어 AI 용어에 친숙한 편이다. 보고서를 쓸 때도 챗GPT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 전체 맥락을 짚 뒤 챗GPT에 몇 자 정도로 초안을 잡아 달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식이다. 김씨는 “그 친구(챗GPT)가 내놓은 결과물을 수정하는 게 쉽고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이미 유능한 조수·친구

문서 작성 등 시간 단축 AI 활용 필수 스펙 부상

누구나 AI를 일상에서 접하는 시대가 되면서 AI 활용 능력이 필수 스펙으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대학과 기업이 앞다퉀 ‘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에 나선 것도 지금 궤도에 올라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AI 리터러시는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를 하나의 이동 수단에 비유하면서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을 배우듯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 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분 안에 똑딱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굳이 AI에게 맡기지 않고 사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AI가 사람보다 20~30배는 빠르다”며 “AI를 먼저 활용하는 사람이 훨씬 앞서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I 리터러시를 관련 전공이나 업무를 하는 사람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인문·사회 전공자를 위해 방학 기간 AI 인문학 단기 과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해하고 코딩 프로그램인 ‘파이썬’의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게 수업 목표다.

지난여름 개설된 단기 과정을 수강한 중앙대 교육학과 3학년 조일(24)씨는 “파이썬을 이용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시각화를 하려면 기본적인 문법을 아는 걸 넘어 응용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솔직히 비전공자 입장에서 부담이 컸다”며 “이 수업에선 챗GPT를 활용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연습을 했다. 확실히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기술적 숙련도	비판적 평가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적용	윤리적 역량
챗GPT를 이해·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 챗GPT를 특정 용도에 맞게 교육·미세조정할 수 있다 ▶ 챗GPT의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응답의 정확성·신뢰성·편향성을 평가·분석하는 능력 ▶ 챗GPT의 응답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챗GPT의 응답의 편향성을 식별할 수 있다	챗GPT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챗GPT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 특정 상황에 맞는 챗GPT의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	챗GPT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능력 ▶ 챗GPT를 활용해 글쓰기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 ▶ 챗GPT를 활용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잠재적인 윤리적·법적 문제를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챗GPT 관련 윤리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 챗GPT 관련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



▲ 챗GPT

#기업들 발빠른 AI교육

20~30배 빠른 일 처리 인문학까지 영역 확장

주요 기업들도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AI 리터러시 교육을 일상 업무에 활용하는 1단계, AI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2단계, AI 개발자를 위한 3단계로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다. LG그룹의 경우 LG AI연구원이 계열사 직원들의 AI 교육을 맡고 있다.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AI 기초과정을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트랙'이 별도로 있다.

전문가들은 AI 리터러시 교육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과연 AI가 내놓은 답이 '정답일까' 반문하는 것부터 시작해 AI 기술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파생시키는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까지 모두 AI 리터러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 감시자도 필요

기술적 '윤리' 문제 대비 개인별 교육 격차 줄여야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AI 윤리를 실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이 성숙한 사용자에게 머무르지 않고 AI 시장의 비판적 감시자로 바로 설 때 시장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영 서울사이버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AI가 어느 순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할 것이란 불안감이 퍼져 있지만 이는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며 "지금은 AI를 사용하는 데 진입 장벽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올 거다. 그때는 AI를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산성 차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AI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면서 진단에 필요한 척도도 개발되고 있다. 성균관대 이세영 교수(미디어커뮤

니케이션학)와 뉴멕시코주립대 박사인 교수(미디어학)가 개발한 '챗GPT 리터러시 척도'는 기술적 숙련도, 비판적 평가,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적용, 윤리적 역량 등 다섯 가지 항목(25개 문항)으로 나뉘어 리터러시 역량을 점검한다.

이세영 교수는 "챗GPT 리터러시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별 리터러시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은 향상시키고 이미 높아져 있는 능력은 더욱 발전시키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